

## 한화, 호주에 2조 원 규모 장갑차 공급 계약



▲ 한화의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 기업 한화가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을 제치고 호주 정부와 2조원 규모의 장갑차 공급 계약을 따내게 됐다.

지난 26일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페트릭 콘로이 호주 군수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화디펜스 측에 전화를 걸어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129대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라인메탈의 입

찰가가 더 낮았지만, 성능 면에서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가 라인메탈의 '링스' 장갑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계약은 약 24억 호주달러(약 2조676억 원) 규모로 전해졌다.

호주는 지난 2019년 9월 '랜드(LAND) 4003단계 사업'을 발표하며 장갑차 보급 계획을 세웠고 한화의 레드백은 라인메탈의 링스와 최종 후보에 올랐다. 라인메탈은 이미 브리즈번에서 또 다른 장갑차 '복서'를 생산하고 있어 이번 사업에서도 우위에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특히 호주는 최근 독일 정부와 브리즈번에서 생산되는 복서 100대를 독일로 역수출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한화의 레드백은 최신 보병전투장갑차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먼저 감지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동방어 시스템'을 갖췄다.

한화디펜스의 모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1년 12월 호주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호주 질롱시 아발론 공항내 최첨단 장갑차 생산시설(H-ACEI)도 짓고 있다.

## 주택연금 가입 사상 최대

한국에서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4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8,1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6,923건에 비해 17.1% 급증한 수치다.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2007년 연금 도입 이후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신규 가입 건수는 1만 4,580건으로 2021년(1만 805건)과 비교해 34.9%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는 집값 하락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서 한 시민이 주택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수령액이 가입 당시 평균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집값 하락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택연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가입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상반기까지 누적 가입자 기준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평균가격은 3억 7,100만 원이었다. 수도권이 4억 3,400만 원, 지방이 2억 3,700만 원이었다. 평균 월지급금은 117만 6,000원으로, 수도권이 134만 3,000원, 지방은 82만 2,000원이었다

## 고령층 70%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구직자. 사진=연합뉴스

55세 이상 은퇴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정년을 넘어서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통계청은 지난 25일 '5월 경제활동인구 조사-고령층 부가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0.2%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최고치로, 60%대에 진입한 건 사상 처음이다.

이들의 고용률도 58.9%로 역대 가장 높았다. 55~64세로 범위를 좁혔을 때 고용률 역시 70.8%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했다.

고령층의 68.5%는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며 노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가정주부 등 지금껏 취업한 적이 없는 고령자 10명 중 1명(8.9%)은 '취업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장래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늘었다. 올해 55~59세의 장래 근로 희망자 비중은 31.8%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60~64세는 30.5%로 0.2%포인트 줄어든 반면, 65~69세는 1.1%포인트, 70~74세는 0.2%포인트, 75~79세는 0.1%포인트씩 늘었다. 나이가 들수록 노동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의 근로 희망 상한 연령은 평균 73세로 고령층 중 모든 연령대가 70세를 넘어서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노동의 이유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55.8%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29점	30점~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맞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22	\$2,465
Asset Limit	\$16,660	\$33,24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T.714.872.9377